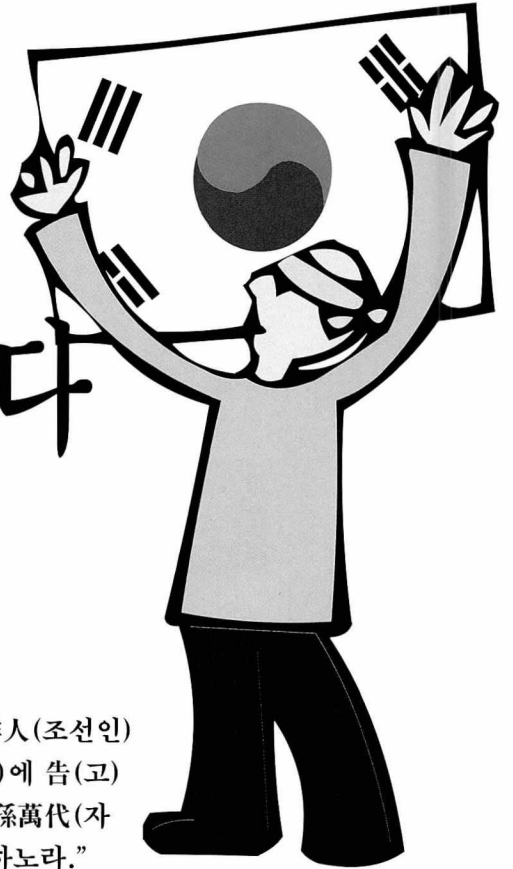


3·1운동은 인쇄인 있어 가능했다



“吾等(오등)은 茲(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만방)에 告(고)하여 人類平等(인류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여 民族自存(민족자존)의 政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후에 중추원 참의원이 된 최남선이 변절 전 일본과 미국의 대통령, 1919년 3월에 치러질 파리강화회의의 참석 각국 대표들에게 전달할 계획으로 기초한 '기미독립선언문'이다.

민영인쇄시설이 변변치 않던 1919년에 2만1천장의 '기미독립선언문'을 인쇄한 곳은 현재 조계사에서 연합통신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수송근린공원터에 있던 이종일이 대표로 있던 보성사 인쇄소였다.

보성사 인쇄소는 천도교 지도자인 손병희가 사실상 운영하던 곳으로 1901년 동학운동을 빌미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간 그가 1906년 1월 28일 귀국하면서 들여온 인쇄기와 활자를 기반으로 한영호, 최석창, 민건식 등과 협력하여 설립한 보문관이 그 전신이다.

이후 1910년 초 보문관은 한영호가 분사를 단행하면서 창신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천도교 기관신문인 <천도교월보>를 인쇄하기도 했다. 이후 손병희는 1910년 말 보성학원 소속 인쇄사인 보성사를 창신사와 병합하여 보성사로 확대하고 <천도교월보> 및 학교 교과서 등을 인쇄·간행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일본의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2.8 독립선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고종황제의 갑작스런 승하(昇遐)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고종황제는 1919년 1월 22일 매국노 이완용 등 7인에 둘러 쌓여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내질 '조선이 일본과의 병합을 자원했다'는 내용의 신빙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황제는 끝내 이를 수락하지 않았고, 이에 이완용 일당이 시녀로 하여금 황제에게 진상하는 식혜에 독을 타게 해서 황제를 피살하고 소문이 번질 것을 우려 시녀마저 독살해 버린다.

이완용 일당의 입막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황제의 죽음은 독살 소문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한일합병이후 억눌려 있던 민초들의 분노를 가히 폭발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이에 손병희 등은 황제의 독살로 민심이 극도로 분노해 있다는 점과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다는 점을 이용 황제의 국장이 치뤄 질 3월 3일을 거사일로 정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 '국상일에 만세를 부리는 게 맞지 않다'는 이견을 냈고, 이에 3월 2일로 하루가 앞당겨 졌다가, 기독교인들의 요청으로 또다시 하루가 앞당겨져 일요일인 3월 1일로 거사일이 결정된다.

아울러 인쇄물 제작의 주체가 결정되는데 초안은 최남선이 작성하기로 하고, 조판 역시 최남선이 운영하던 신문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인쇄는 3·1운동 당시에 국내에는

70여개의 인쇄사 중 조선인이 운영하던 인쇄사는 1912년에 설립된 보진재를 비롯해 11개소에 지나지 않았던 관계로 33인의 민족대표였던 이종일과 실질적인 소유주인 손병희가 운영하던 보성사 인쇄소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최남선에 의해 작성된 독립선언서 초안은 2월 20일부터 보성사 인쇄소 대표인 이종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장감독 김홍규, 총무 장효근 등의 주도하에 인쇄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33인의 민족대표와 최남선 외에 독립선언서 제작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 더 있었는데 매국노 이완용과 조선인 형사 신승희였다.

이완용의 경우는 훗날 일본의 앞잡이가 된 최 린으로부터 만세운동을 함께 할 것을 권유받으면서 만세운동 사실을 알게됐는데, 그는 어찌된 일인지 만세운동 당일까지도 이 소식을 일본에 함구함으로써 조선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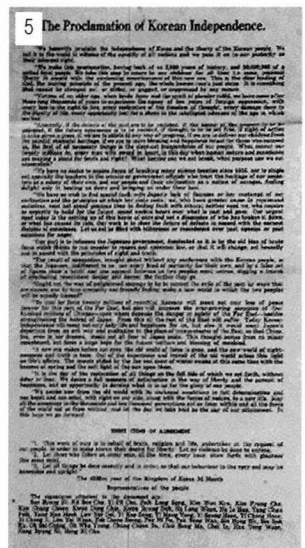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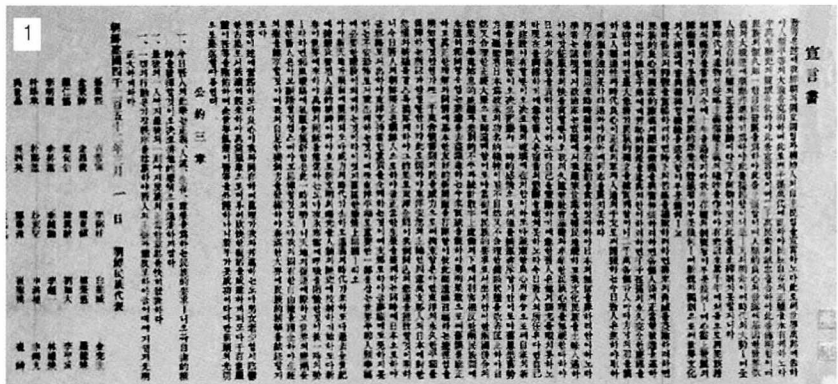
조선인 형사 신승희는 독립선언서가 한창 인쇄 중이던 보성사 인쇄소를 들이닥친 인물이다. 그는 인쇄 중이던 독립선언서 물증까지 확보했으나, 최 린의 설득과 손병희가 마련해 이종일이 제공한 5천원이라는 거금에 넘어가 만세운동 당일에는 출장을 핑계로 한양에 있지 않았다.

훗날 신승희의 이같은 행각이 알려지면서 일본 경찰에 체포된 그는 자결로서 민족에 대한 배신을 대신한다.

이완용과 신승희의 묵인으로 2월 27일 보성사 인쇄소에는 활판으로 인쇄된 2만1천장의 독립선언서가 준비됐고, 천도교 신자들과 학생들에 의해 몇몇 지방까지 선언서 초안이 배포되었다.

지방에 전해진 독립선언문은 등사기로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1919년 당시에 지방에 인쇄소가 많지 않았을 뿐

보성인쇄사 독립선언문 인쇄



1. 만세운동 당시의 기미독립선언문 2. 독립선언문 3. 재미동포 소식지 신한민보에 실린 독립선언문 4. 샌프란시스코 3·1운동 속보 5. 미국에 배포된 독립선언문

더러 그나마 있는 몇몇 인쇄소에는 한양에서의 만세 운동에 자극 받은 순사들로 인해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목포와 부산의 경우를 보자면 지방에서의 독립선언문 인쇄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기독교인들을 통해 독립선언문을 전달받은 목포시장 남궁혁은 미국상을 운영하던 박상렬로 하여금 목포에 단 한 대 뿐인 신흥철공주식회사의 등사판을 빌려오게 해서 독립선언문을 등사했는데 신흥철공주식회사의 대표는 박상렬의 아버지 박상철이었다.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동래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인 곽상훈이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동래에 내려왔다고 한다. 주동 학생들은 하숙방을 전전하며 등사기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해 3월 13일 동래읍 장날에 거사를 벌였다고 한다.

한편 보성사 인쇄소에서 독립선언문이 인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 경찰은 조판 및 인쇄를 맡았던 인쇄 기술자들을 모두 투옥시켰다.

보성사 인쇄소는 그 뒤에도 윤익선과 이종린, 이종일, 김홍규 등이 지하신문인 '조선독립신문' 1만 부를 계속 발행했다. 계속된 저항으로 보성사 인쇄소는 일본에 의해 강제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되고, 1919년 6월 28일 일본에 의해 불태워짐으로서 역사의 소임을 다하게 된다. 이홍우 기자 (photoyw@print.or.kr)